

## 모 두 말 씀

2017. 4. 6(목) 10:30~11:50  
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
※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 
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금융위원회 위원장  
임 종 룡

### 1. 모두 말씀

- ☐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제2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오늘 이 자리는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정책의 방향을 담은 「제4차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(2017~2019)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.
  -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, 작년부터 연구용역도 수행하고, 수 차례에 걸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, 실무분과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.
- ☐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안건인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.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

### 2. 그간의 성과와 한계

- ☐ 금융위원회에서는 2008년 「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」시행에 따라 금융 클러스터 구축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.
  - 2009년에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, 3차례에 걸친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

-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, 금융회사와 유관 기관 모두의 노력이 합쳐져서 오늘날 우리 금융산업이 양적·질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도 제고되는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은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.

□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환경은 정부가 당초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작할 때와는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.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환경 변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전략이 확대되고 있으며
- 미국·유럽 등을 포함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지형 변화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금융중심지 정책이 현재 어디에 와 있고,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일일 것입니다.

### 3. 정책방향 재정립

-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금융위에서는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을 분석하고, 또 그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강점과 기회요인은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.
- 또한 아태지역 주요 금융중심지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습니다.

□ 이를 바탕으로 하여 ‘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’를 추구하고,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재정립하였습니다.

- 전 세계의 자본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보다 많이 거래되면 금융회사와 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고, 그동안 추구해 왔던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집적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것이며
- 궁극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□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계획안은 ① 자본시장 국제화, ②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, ③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, ④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4대 추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.

- 먼저 우리 자본시장의 자금조달과 운용 기능의 국제화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이고,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.
- 또한 금융중심지의 발전 여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는 바,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-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와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- 마지막으로 **금융인력 양성, 금융연관산업 활성화, 경영·생활환경 개선 등 금융관련 인프라를 정비**하고 국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**서울시와 부산시**에서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지역별 강점을 살린 **특화전략을 수립**하고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
- 앞으로도 **서울은** 전세계적 금융산업 트렌드인 **핀테크**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에 따라 **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**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

- **부산은** 대표산업인 해양·선박·물류산업을 적극 활용하여 **해양·파생에 특화된 금융중심지**로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.

#### 4. 부산 전문금융인력 양성과정

□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중요 축을 이루고 있는 **금융인력 양성**과 관련해서 「**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설 기본계획안**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

- **우수한 금융전문인력**은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,

- 과거 정부지원을 마중물 삼아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**KAIST 금융전문대학원** 등과 함께 이번에 개설되는 **부산 금융전문인력 양성과정**이 **금융중심지 발전에 크게 기여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#### 5. 마무리 말씀

□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것은 **멀고 어려운 목표**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 정책은 우리 경제를 **한 단계 도약**시키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**중요 과제**이며,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할 **우리 금융의 미래**입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**장기적인 시각**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, 단기적인 성과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

- **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중심지 정책**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오늘 이 자리에서의 논의가 우리 금융산업이 **新성장동력**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해 나가는 데 **큰 도움**이 될 것으로 믿으며,

- 여기 계신 **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정책 제언**을 부탁드립니다.

□ 감사합니다.